제 28 권 효도

1. 자녀들을 위한 기도

출처: *Persuasives to Early Piety*
저자: 존 파이크(J. G. Pike, 1886-1952): 침례교 목사, 캐나다 알베르타 에드몬톤에서 출생함
역자: 이상협

사랑하는 젊은 친구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본 것들을 당신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듣겠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는가!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조차도,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며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말해 줄 수는 없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장 존귀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경건의 아름다운 길을 일찍이 걸어가라고 간청하러 왔다. 오,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이,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이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해 상고하기를 바라는지 모른다! 영원한 세상을 염두에 둔 당신에게 이 가련하고 덧없는 세상이 무슨 큰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사소한 일로 당신의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당신의 삶, 당신의 전부, 당신의 영원,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구주, 당신의 천국, 곧 당신이 생각하고 소망해야 할 모든 것을 위하여 간청하고 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낯선 사람이 당신이 누릴 영원한 복에 대해 당신보다 더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지금까지 생각 없이 지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지해지도록 하라. 그럴 때가 되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세월을 허비하였다.

프란시스 월싱엄(Francis Walsingham) 경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라. "우리는 웃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진지하다. 하나님은 진지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진지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성령님은 진지하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분투하신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는 일에 진지하다. 내세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진지하다. 그렇다면, 인간이 진지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가!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가볍고 경솔할 수 있는 것일까?"

당신은 이 엄숙한 권면을 듣고 웃으며 "이것은 광신적인 열정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겠는가? 이러한 간곡한 경고는 무시될 수 있고, 성경의 진리들은 불신될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죽음과 영원을 대할 때 가장 부주의한 마음조차도 신앙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의 젊은 친구여.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 생명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눅10:42). 그것은 당신에게,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만, 죽은 자들은 그것의 가치를 다들 알고 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가져온 복을 누림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 반면,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무한한 비참 가운데 믿음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땅 뿐이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되려는가?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된다!

간청하건대, 이 작은 소책자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읽기 바란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신이 복을 받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여기서도 행복하고 시간이 지나 영원한 세상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피난처와 결코 당신을 망하게 하지 않는 친구들을 얻으라고 권하고 싶다. 이 땅의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한없이 엄중한 재판관을 염두에 두기를 간청한다. 즉,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관련된 심판을 기억하라. 그것은 이 땅에서의 약간의 부나 명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부 또는 영원한 가난, 영원한 영광 또는 영원한 수치, 미소 짓는 하나님 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이 모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당신의 축복이지 나의 유익이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는 것이 헛된 일일까? 오, 나의 하나님, 이 간청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젊은 친구여, 우리는 가장 심각한 부름을 사소한 일처럼 여기곤 한다. 우리는 신문에 실린 쓸모없는 소식을 듣듯이 하나님의 경고와 복된 소식을 대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소책자를 그렇게 읽지 않기 바란다. 나는 진지하게 당신에게 권하고 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진지한 메시지를 꼼꼼히 읽어 보기 바란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이 권면에 대해 100년 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여 보라. 100년이 지나기 훨씬 전에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강건하고 젊은 육체라도 결국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며, 당신의 이름은 이 땅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있을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기쁨을 누리거나, 또는 깊은 슬픔 속에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젊은 친구여! 그때가 되어 지금의 이 간곡한 경고를 어떻게 되돌아보고 싶은가? 만일 당신이 이 경고가 내포하는 귀중한 조언을 따라 살았다면, 그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지만 이 경고를 잊고 살아간 자들은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억 속에 떠오를 때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부르심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그리고 영원한 다음 세대가 곧 찾아올 것이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라.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천국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지난 날 이러한 진지한 부름에 응했던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들 역시 한때는 당신만큼이나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들은 구원을 발견했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셨던 열정적인 설교, 혹은 한 권의 작은 책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회상하겠는가? 반면에,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완전한 어둠과 절망의 지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비참한 영혼들은 자신들을 부르던 이러한 간곡한 경고의 말씀들을 외면하도록 만든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광기에 저주를 퍼붓고 있다. 오, 나의 젊은 친구여! 나는 지금 하늘의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지옥의 죄인들이 겪는 공포를 떠올리며, 아주 간곡히 부탁한다. 이 사랑 어린 부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더 나아가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분명히 그 여행 준비를 할 것이다.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떠날 때, 당신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나겠는가? 여행지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당신은 집에 돌아올 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겠는가? 만약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 그 장애물을 제거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땅에서 당신은 진실로 나그네이자 여행자일 뿐이며, 잠시 잠깐 후면 영원한 세상으로 향하게 될 존재가 아닌가? 그 영원한 세상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혹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처소이다. 혹시 수많은 것들이 힘을 합쳐 당신이 천국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사실인가? 정말로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목적지에 대해 무관심한 채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가? 당신이 들어가게 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 도무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끝이 없으며, 또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혹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그 영원한 세상의 문턱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참된 경건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 말을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가 절벽 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매순간 누군가 추락하며 죽어가는 광경을 보게 된다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이들을 깨우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열정적이라 한들 과할 수가 있겠는가?

오, 나의 젊은 친구여!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심하고 이를 가볍게 여겼다면, 당신에게는 무한하게 심각한 위험, 곧 영원한 위험이 임박해 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간청하건대, 깨어나라! 너무 늦기 전에, 영원이 당신의 운명을 봉인해버리기 전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한 가지에 대해 생

각하기 시작하라. 굶주려 죽어가는 이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보다,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자나 화염 속에서 타 들어가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보다, 당신의 영혼을 향한 이 한가지의 필요가 더 크다.

어쩌면 내가 당신을 깨우기 위한 모든 외침은 헛될지도 모른다. 과연 그렇게 내버려둘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스스로 자신의 멸망을 확정 짓는 자가 되겠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사탄보다 더욱 잔인한 원수가 되려는가? 아아, 당신이 그렇게 되길 선택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곧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는가?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더 나은 소망을 품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로 나아가자. 당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자.

~~~~~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

영원히 복되시며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얼굴빛은 생명이며, 주의 진노는 사망입니다. 주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주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 주의 영원한 보좌에서 굽어 보사, 이 미천한 피조물인 저에게 주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가난하고 세상의 쾌락 속에서도 비참할 것입니다. 허나 주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쁨을 누리고 궁핍 속에도 부요할 것입니다. 비록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를 알지 못한 상태로 온 세상을 거느리는 왕보다 훨씬 더 복되고 부요한 자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본성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게 하신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알게 하셨다면, 이 글을 읽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사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타락하고, 비참하고, 완악한 자식이며, 죄의 종이며, 당신의 진노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늘의 긍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요! 오, 당신의 손길 외에는 그 무엇도 죄인을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에 감동받지 않는 마음보다 더 단단한 바위는 없으며, 당신의 인자하심에 따뜻해지지 않는 마음보다 더 차가운 얼음은 없습니다. 아, 그러나! 위대한 주여,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바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얼음을 녹이시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 압니다! 나아가 그렇게 행하실 뜻 또한 있으신 줄을 압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사 45:22). 지금 영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이 주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가장 연약한 도구들이 가장 큰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주께서는 작은 돌멩이와 물맷돌로 교만한 대적을 땅에 엎드러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많으신 주여, 지금도 주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나타내어 주소서. 이 글을 읽는 이들 가운데 혹 누군가가 그 권면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영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연약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무관심한 마음들을 깨우셨습니다. 이 글이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글이라 할지라도, 주의 능력과 자비를 더욱 나타내셔서 한 영혼이라도(아, 여러 영혼이 되길 원하나이다!) 깨어나게 만드는 엄숙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이 글을 읽는 이들 중 몇몇이라도 자신에게 인생이 주어진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 오, 그들이 심판과 멸망에 이르기 전에,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인생은 헛되이 낭비되고 죄 가운데 허비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님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써 완고한 마음을 제압하시고 얼음처럼 차가운 바위를 깨뜨려 주소서.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당신의 권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일어나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글을 읽는 젊은 죄인들이 장차 임할
~~~~~

주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글은 갈대와 같이 연약할 뿐이니, 전능하신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을 회개와 기도, 그리고 참된 회심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이 그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들의 영원이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침내 저주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죽음으로 확증하신 사랑을 짓밟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인해 지옥이 기뻐하고 천국이 애통하게 되는 일을 막아 주소서. 도리어 이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모든 선을 발견하는 어떤 회개한 젊은이를 바라보며, 당신의 임재 앞에 거하는 천사들과 보좌를 둘러싼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크신 하나님, 이 간구를 들어 주소서! 오, 구주의 눈물이 이 간구를 재촉하게 하소서! 오, 구주의 중보가 이 간구를 이루게 하소서! 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간절한 바람을 성취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소서! 오, 인류의 구주여,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베푸시는 주 예수여, 그 복되신 성령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소서! 오, 만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이 간구에 응답하시고, 젊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아들의 발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향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간구를 들어 주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 부모를 공경하라

출처: *The Ten Commandments*
저자: 토머스 왓슨 (1620-1686, 비국교도 청교도 목사이자 다작가. 정확한 출생지와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음).
역자: 김현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자녀들은 존경을 가득 담아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정중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할 때 공경하는 일도 언급했다(히 12:9). 이러한 존경과 공경이 다음처럼 드러나야 한다.

1) **부모 경외에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레 19:3, 원어에 따른 영어 번역 NASB는 'Every one of you shall reverence his mother and his father'이다). 십계명에는 아버지가 먼저 언급되지만, 이 구절에는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 어떤 면에서 어머니에게 더 영예를 돌린 것이다. 곧, 어머니가 여자로서 겪게 되는 여러 연약한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머니를 더 우습게 보려 하고 이에 따라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인내해야 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2) **부모 공경은 말이나 몸짓의 외적 행동에서 모두 드러나야 한다.** 말로 하는 공경은 부모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자기 부모에 대해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게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라고 말했다(왕상 2:20). 자녀들은 공경하는 자세로 부모에게 말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가 공경 받을 만하다면 부모에 관해 말할 때 더더욱 그래야 한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잠 31:28). 부모가 허물이나 무분별한 모습을 보여도 자녀는 최선을 다해 지혜로운 말로 부모의 허물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1)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므로 공경을 표해야 한다.** 요셉은 자신이 위대한 군주가 되고 아버지가 보잘것없게 되었어도 마치 아버지가 왕이 되고 자신은 볼품없는 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께 절하며 겸손히 행하였다(창 46:29). 솔로몬 왕은 어머니가 오자, "일어나 영접하여 절했다"(왕상 2:19).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부모를 멸시한다.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부모를 무시해 교회에 수치가 되고 부모가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신 27:16).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저주 거리라면 우리 세대에서 저주 아래 있는 자녀는 얼마나 많단 말인가! 부모에게 불경한 자녀들이 나중에 본인들도 자녀를 갖게 될 때 그 자녀 역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불경한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똑똑히 알게 하신다.

(2) **부모에게 공경을 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깊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골 3:20). 우리 주님은 친히 자녀의 본이 되셨다. 그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눅 2:51). 천사들도 그분에게 복종하건만, 그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 **부모의 조언에 경청하기**: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잠 1:8). 말하자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부모가 당신에게 주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귀를 막고 못 듣는 자처럼 굴게 아니라 마치 신탁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 "행실이 나쁘다"(sons of Belial, 마귀들의 아들들)라는 평을 들었다(삼상 2:12, 25). 자녀들은 이생에서 직업의 선택이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역시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곱은 40세가 되어도 부모의 조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다(창 28:1-2). 개신교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과 혹은 로마 가톨릭교도와 교제를 권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할 것이다. 많은 경건한 자들의 견해는 이 같은 경우 자녀는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부

모의 뜻에 굽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자녀는 "주 안에 있는 자와 혼인"해야 한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주 안에서 혼인하는 것이 아니다(고전 7:39).

* **부모 순종은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공명(共鳴)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자녀는 순종으로 화답해야 한다.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의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그 명령을 실행시켰다(렘 35:14).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골 3:20). 아무리 자기 성미에 맞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에서는 아버지가 사슴고기를 내오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를 선택하는 더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이 일은 공의와 정직한 일에 제한받는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것에 한정된다(엡 6:1).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를 때 그들은 자녀에게 순종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이런 경우, 자녀는 순종할 의무가 없다.

* **부모 공경은 부모의 곤궁을 덜어주는 것에서 드러나야 한다.** 요셉은 나이 든 자기 아버지를 소중히 여겼다(창 47:12). 그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빚이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자녀는 또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봉양해야 한다. 부모가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 돌을 던지는 괴물 같은 자녀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집이 폐쇄되면 우리는 역병을 생각하곤 한다. 부모에 대해 마음을 닫은 자녀의 마음은 역병이 든 마음이다. 우리의 복되신 구주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면서 친어머니처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하셨다(요 19:26-27).

3)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엄숙한 계명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듯이, 그분의 뜻 또한 순종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2) **자녀를 키운 것만으로도 부모는 큰 사랑과 애정으로 공경 받을 만하다.** 돌보는 일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사랑을 입증한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며 돌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표시이다. 부모는 종종 자신보다 자녀를 더 아낀다.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꽃봉오리가 어려움 없이 잘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연약한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의 관심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한창 자랄 나이에 행여나 타락하여 나쁜 아이가 될까 많이 염려한다. 부모 사랑은 재물의 쓰임새를 통해 입증된다(고후 12:14). 모은 재물을 자녀를 위해 쏟아 붓는다. 부모는 까마귀나 타조처럼 자녀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는다(욥 39:16). 부모는 때때로 자녀가 더 강해지도록 그들이 힘들 때 나서지 않기도 한다.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자녀는 감히 부모의 사랑에 비견될 수 없다.

(3)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골 3:20).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가 아닌가? 그대가 회개하고 믿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일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분은 그렇게 할 때 꼭 보상하신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야곱은 축복받을 때까지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4계명과 축복을 갈라놓지 않으셨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불렀다(엡 6:2). 긴 수명이 축복으로 언급되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시 128:6).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었어도 눈을 보완할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신 34:7).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하셨다(삼상 2:31). 홍수 이후 수명이 단축되고 짧아졌다. 어떤 이에게는 자궁이 곧 무덤이 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자기 요람을 무덤으로 바꾼다. 어떤 이는 꽃다운 나이에 죽는다. 죽음은 날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렇듯 죽음이 우리를 향해 사방에서

넘쳐날 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긴 수명을 주신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시 91:16). 그러므로 긴 수명은 축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긴 시간을 주시고, 봉사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위로를 누리라고 긴 시간을 주신다면 이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긴 수명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따라붙는 축복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없다. 압살롬은 왕관을 쓰려고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없애려 한 불순종의 자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수명은 절반에 그치고 말았다. 압살롬이 탄 노새는 그가 너무 무거웠는지, 그를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하여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게 하고” 달아났다. 이로써 압살롬은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반대편으로 오르지도 못하게 되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생명이 넘친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생명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미로운 삶도 누리게 된다. 수명만 길어질 뿐,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자녀는 자신이 물려받을 땅에서 오래 오래 살 수 있게 된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창 27:38). 보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한 가지 이상으로 축복하신다. 그저 긴 수명만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풍요로운 땅도 얻게 하신다. 그저 땅만 받지 않고 사랑까지 겸하여 받게 하신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그분의 사랑까지 받게 된다. 이 모든 내용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3.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

출처: *A Help to Domestic Happiness*

저자: 존 안젤 제임스 (John Angell James, 1785-1859: 영국 회중교회 설교자이자 작가. 영국 도싯셔주 블랜드포드에서 태어남)

역자: 스데반 황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 23:24-25).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라. 부모는 당신이 존재하는데 쓰임 받은 도구이며 당신과 혈통적인 관계에 있다. 부모와의 유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들과의 친밀함, 부드러움, 신성함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은 그들의 일부이며, 당신이 그들을 통해 태어난 사실을 깊게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놀랍고 엄중한 책임을 실감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당신과 부모 사이에는 혈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의무와 관련된 관계도 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계시의 언어와 사람의 이성을 합하여 권위의 힘과 본성의 힘을 결합시키심으로써 당신으로 효도하도록 부르셨다. 이는 감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연구하라. 당신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라. '부모'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라.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라.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며, 어디든 데려다주며, 교사이며, 안내자이며, 은인이고, 공급자이다. 그렇다면 자녀의 의무는 어떠해야 마땅할까! 다음은 효도의 의무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1) 당신은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다른 모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마음 상태이다. 사랑은 만족을 주려는 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여야 한다. 당신이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 자체가 이를 요구한다. 만약 당신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또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우 그릇된 악한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 부모를 가장 사랑하며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부모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며 좋아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라. 부모를 싫어하거나 멀리하거나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에 대해 편견을 품지 말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당신 마음에 남지 않도록 하라. 존경과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존경과 순종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 당신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부모와 함께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것을 더 행복해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면 부모는 마음 아파할 것이다. 사실 당신에게 자상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

*** 당신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모든 일에 그들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려고 애쓰며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본질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관심이다. 효도의 본질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관심이다. 자녀들이여! 이 한 가지, 단순한 생각을 꼭 붙들라.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릴 때 가장 즐겁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자녀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당신이 이러한 사랑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긴 후 당신의 행동 표준으로 삼는다면, 나는 더 이상 권면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규칙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오, 당신이 이성을 가지고 다음처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이성과 계시, 명예와 감사에 묶인 자로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이 시간부터 부모님의 위로를 증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실천하겠다. 나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리고 그 일로 나도 행복해지도록 나의 의지를 다하겠다.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선할 것이다." 이러한 고상한 다짐은 옳고 마땅하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나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당신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칭찬을 원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의 칭찬을 소중히 여기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칭찬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자신들이 부모의 눈에 띄기를 원하고 그들의 칭찬을 갈망한다. 아들딸이 그들에 대한 부모의 생각에 전혀 무관심하다면 이는 그들의 기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으며 청년 시절을 지나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반항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2) 당신은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제4계명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강조한다. 공경은 감정, 말, 행동에 있어서 상대를 존중함을 의미한다. 이는 당신의 마음에 그들의 권위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두신 그들을 향해 존경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지하고 깊은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권위에 온 마음을 다해 복종해야 한다. 만일 마음에 존경심이 없다면 행동에서 공경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미덕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차원적인 존경심이든 사람들과 관련된 간접적인 존경심이든, 우리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미덕은 있을 수 없다.

* **당신의 말은 존경하는 마음과 일치해야 한다.** 부모에게 말할 때, 당신의 말투와 어조는 겸손하고, 복종적이며, 존중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시끄럽거나, 떠들썩하거나, 무례하거나, 심지어 버릇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의 동료가 아니라 당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부모이다. 만약 당신의 의견이 그들의 의견과 다르다면, 논쟁조로 경솔하게 따지거나 고집스럽게 말하지 말고, 제자처럼 온순하고 호기심 어린 태도로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라. 그들이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책망하거나 날카롭게 비난하더라도 말대꾸를 하거나 원망을 품는 대신 가만히 당신의 입을 다물라.

*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말을 삼가야 한다.** 자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말을 삼가지 않고 시끄럽게 혼자 떠드는 수다스러운 젊은이는 함께 있기에 매우 거북하다. 자녀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항상 겸손하고 정숙해야 하며, 특히 부모님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에 대해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절대로 부모님의 잘못이나 약점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그들 앞에서 부모님에 대해 하찮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당신은 부모님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당신의 부모를 옹호해야 한다. 설령 그 비난이 사실이더라도, 진실이 허락하는 한, 모든 변명을 늘어놓고, 당신 앞에서 당신의 부모를 깎아내리는 잔악함에 대항해야 한다.

* **부모님을 향한 당신의 모든 행동에 존경의 표가 담겨 있어야 한다.** 모든 행동에서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부모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자녀이어야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부모님이 눈앞에 있을 때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에 항상 당신의 행동을 자제하라.

3) 당신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본성의 가장 명백한 법칙 중 하나이다. 짐승이나 새나 파충류와 같은 비이성적인 동물도 본능에 따라 어미에게 순종한다. 아마도 이보다 더 보편적인 모습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순종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릴수록 인도자와 통치자가 더 필요하다. 바울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부모의 요구 및 명령이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는 때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우에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그릇된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도 온유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순수하고 양심적인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당신의 불순종은 신앙 양심에 의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당신의 입장, 성향, 취향 같은 것들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순종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명령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수치스런 일이다. 가능하다면 부모의 지시를 미리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늦는 순종은 칭찬을 잃는다.

* **기쁘게 순종해야 한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전혀 미덕이 아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대드는 마음이며 거룩의 옷을 입은 사악함이다. 하나님이 즐거이 바치는 자를 사랑하시듯 사람들은 자녀들이 즐겁게 순종할 때 더욱 사랑하게 된다. 부모 앞에서 투덜거리며 삐치고 불평하는 자녀는 가장 추악한 모습 중 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는 순종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 **순종은 자기 부정을 담아야 한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취향을 희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군인이 명령을 받으면, 비록 편안한 집에서 쉬고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위험한 전장으로 즉시 달려 나간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군인처럼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부모가 함께 있을 때 순종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부모가 없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젊은이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행동을 목격할 때만 부모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그런 비열함과 악을 경멸하고 혐오해야 한다. 그런 위선은 혐오스럽다. 더 고상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대륙과 바다가 당신과 부모 사이에 놓여 있어도 순종하라. 부모의 명령을 어디에서나 마음에 품고 다니라. 그의 목소리 대신 양심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신다는 의식을 가지라.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든 부모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부모님이 만지지 말라고 금지한 물건을 친구들이 당신 부모님이 그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만져보라고 압박을 가하더라도 "하나님과 내 양심이 여기에 살아있어"라고 말하라. 이러한 자녀의 대답은 얼마나 숭고하고 인상적인가? 이 아름다운 모범을 본받아 부모님이 당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결심하라.

4) 당신은 제4계명의 원칙에 따라 가족의 규율과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 질서가 잘 잡힌 모든 가정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다. 그런 가정에는 권위 질서에 따른 서열, 체계, 규율, 보상, 징계 등이 있다. 모든 자녀는 이러한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 언제라도 당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부모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를 참을지언정 격분하거나 흥분하며 대들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당신이 징계를 받을 때는 잘못을 고백하고 권위와 지혜 가운데 행하여진 징계를 받아들이라. 가정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광경 중 하나는 부모의 징계에 잠잠히 순종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이런 자녀는 다른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 그러면 그들도 부모의 징계에 조용히 복종하게 된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부모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함께 그 자녀의 선한 성품을 증거한다.

나이 든 자녀의 경우, 부모가 그 자녀를 꾸짖는 것만 해도 극심한 고통이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책망을 우습게 여기며 신경 쓰지 않거나, 경멸하는 미소를 짓거나, 시무룩한 태도로 투덜거리며 무례하게 대꾸한다면 부모의 괴로움은 극도로 커진다. 이러한 반역적인 행동은 매우 심각한데, 그 이유는 그들은 본성과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실 부모의 훈육의 고삐가 누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꾸중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꾸중 받을 때 분개함으로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내하면서 영혼에 솟구치는 격동을 이겨내라. 서운한 감정이 당신의 옳은 판단에 대항하여 반역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부인하라.

꾸지람을 들은 후 보이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은 꾸지람을 당하기 전의 행동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때도 있다. 반면에, 꾸지람을 들을 때 겸손히 복종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에 더욱 깊은 사랑을 만들어낸다. 필자의 친구 중 하나는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의 행동은 내 마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깊게 남아있다. 어느 날 그는 동생들 앞에서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부모의 꾸지람에 온순하게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있을 때 부모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생들에게 자기처럼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이러한 사과를 통해 부모를 향한 순종과 사랑을 동생들 앞에서 표현했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자녀가 되었다. 무뚝뚝함, 무례함, 그리고 완강한 저항은 이러한 영웅적인 관대함과 깊은 겸손의 행동에 비하면 매우 비열하고 소심하고 쩨쩨한 행동에 불과하다.

5) 당신은 가족 질서 유지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서가 잘 잡힌 가정에서는 모든 일이 우연에 맡겨져 있지 않고 확고한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정해져 있고, 모든 일은 정해진 때에 진행된다. 식사, 기도, 잠자리에 들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등, 모두 정해진 때에 진행된다. 이러한 가정 규칙에 복종하는 것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마땅한 의무이다. 아들딸이 성장했거나 성년이 되었을지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다. 그들은 가정의 법을 따라야 하며, 나이가 들면 더더욱 따라야 한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도덕적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성숙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정의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 규칙을 정했다면 복종해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장성하더라도 아직 부모에게 속하여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어떤 친구를 집에 데려올지에 대해서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반대할만한 친구를 데려오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오락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자녀들은 부모가 그들의 양심에 따라 허락하지 않는 오락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세속적인 친구들을 데려와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오락을 즐긴다면 이는 명백하게 집안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이다. 이러한 행동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악한 반역 행위로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막 되먹은 자세이다. 집에서 보는 책조차도 가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만일 부모가 소설이나 저속한 로맨스를 담은 책을 금지한 경우 자녀는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본성과 신앙에 따라 부모의 권위에 굴복해야 한다.

6) 당신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부모와 상의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을 키우면서 당신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이며 상담자로서 당신이 항상 여쭈어야 마땅한 부모이다. 당신은 그들의 권면과 조언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판단과 권면에 대해 의심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부모인 그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특히 삶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는 당신은 젊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길은 당신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우발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길을 밟아왔고 그 길의 굴곡과 위험, 그리고 어려움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일에 부모와 상담하라. 당신의 친구들, 책, 오락 등에 대해 상담하라. 그들로 당신의 관심사를 알게 하라. 가능한 그들에게 숨기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특히 사업, 직장,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들과 상담하라. 당신은 아마도 그들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지원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결혼과 관련하여 성경은 족장 시대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훌륭한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삭과 야곱은 모두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를 부모에게 맡겼다. 룻은 며느리였지만 전적으로 그녀의 결혼 문제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맡기고 지도 편달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선택의 권한은 이제 자녀에게 더 많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조언은 여전히 중요하다. 믿음이 깊은 한 신자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직업을 선택하고, 장년일 때는 아내를 선택하되 꼭 나를 데리고 가거라. 노인들은 너희보다 더 멀리 볼 수도 있단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모든 행실에서, 특히 부모를 향해,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의무에 충실한 태도를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

이것이 효도의 요약이다. 아들딸들이 이 글을 읽고 마음에 담아 진심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란다.

4. 자녀들, 권위, 그리고 사회

출처: 『성령 안에서의 삶: 결혼, 가정, 일터에서 (에베소서 5:18–6:9 강해)』, "순종하는 자녀들"

저자: 데이비드 마르틴 로이드 존스(1899-1981): 아마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일 것이다. 1938년부터 1968년까지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했으며, 웨일스에서 태어났다.

역자: 김선영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우리는 지금 규율의 문제에 있어서 놀랄 정도로 붕괴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무법이 만연하고 있다. 결혼과 가정생활이라는 삶의 바탕이 무너지고 있다. 무법의 영이 퍼져 있으며, 한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을 받고 질문을 넘어 조롱당하고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악이 들끓는 시대를 살고 있다. 더욱이 이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관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문명과 사회라 불리는 것의 전면적인 붕괴와 몰락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마도 빅토리아 시대 말기와 20세기 초반에 너무나 당연했던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금 잠시 언급하는 것이다. 엄격하고 율법적이며 거의 잔인하기까지 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아버지 모습에 대한 반발이 이 시대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다. 아무튼,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규율과 법과 질서 전반의 붕괴와 밀접하게 연결되다.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런 현상이 언제나 기독교가 쇠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18절부터 끝 절까지 세상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를 끔찍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그가 나열한 여러 무법 상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롬 1:28). 그리고 이어지는 묘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끔찍한 목록에 바울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딤후 3:1). 그리고 그때의 특징들을 열거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딤후 3:2-3).

이 두 경우 모두에서 바울은 타락과 극단적인 불경건, 신앙의 붕괴가 일어날 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 주제에 주목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엡 5:18). 문명사회가 도덕성과 바른 삶을 상실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불경건에 있

다는 사실을 세상 정부는 언제쯤 깨달을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경건이 있으면 반드시 불의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부와 지도자들은—정당에 관계없이—성경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의 이론을 의지하려 든다. 그들은 불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의는 항상 불경건의 결과일 뿐이다. 다시 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경건함의 회복, 즉 영적 각성이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대 상황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게 만든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어 빛을 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믿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바른 질서와 존중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아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현 시대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훈을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성경에 따르면, 이 교훈은 앞서 말한 것처럼 비(非)기독교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권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부분에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여 탈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은 당대 종교인들을 향해 이 문제를 지적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십계명의 명령 중 하나를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십계명은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돌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라 주장하면서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주님께 바친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돌볼 수 없다." 주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5-6). 그들은 말하길, "이건 고르반이다. 주님께 바친 것이다. 물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돌보고 싶지만, 이미 하나님께 그 돈을 다 바쳤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부관계에서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순종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자에게 말한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 말할 때도 먼저 아내에게,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한다. 이번에는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부모에게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원칙을 보여준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상기시킨다.

덧붙이자면,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 드러난다. 이방인들(이교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만 언급하고 '어머니'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유대교의 입장은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동등하게 언급한다. 명령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며,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단지 듣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듣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순종은 '공경'과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자녀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율법의 문자만 따르고 정신은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신 부분이다. 자녀들은 율법의 문자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지켜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위치와 질서를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 관계를 큰 특권으로 여기고, 그렇기에 그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런 공경과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기독교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은 보통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으며, "도대체 그들이 누구길래?"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지?" 하고 말한다. 그들은 부모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며 존중 없이 말하며 무시한다.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주장과 권리, 그리고 자신들의 '현대성'을 내세운다. 이런 일은 과거에 에베소 신자들이 살았던 이방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 이 시대의 세속 사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신문에서 이러한 무법 상태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며, 아이들이 "더 일찍 성숙하고 있다"는 표현을 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인체의 생리적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이며, 그로 인해 공격적이 되고,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든 볼 수 있다—젊은이들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며,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자기주장과 권리를 내세우는 모습들이다. 이것은 현 시대의 죄악성과 무법함이 가장 추악하게 드러나는 모습 중 하나이다. 이제, 이런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사도는 말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 대하라. 그리고 네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준 이유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내가 이 순서대로 설명하는 데는 나중에 이유를 밝히겠다. — "이는 마땅하니라." 이것은 곧, "옳은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바울이 말하는 '마땅하다'는 것의 의미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창조 질서 전체를 말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질서를 말한다. 자녀에 대한 문제 역시, 처음부터 그 원리가 존재했다고 바울은 말한다. 이것은 언제나 그래 왔으며, 자연 질서의 일부이고, 삶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질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는 태어난 새끼를 보살피고, 먹이고, 지키고, 돌본다. 이것이 바로 자연 질서이다. 연약하고 미숙한 새끼는, 부모로부터 오는 보호, 인도, 도움, 그리고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마땅하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자연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창조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이 질서 안에 속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자연 질서와 흐름에 속한 당연한 일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심지어 세상의 지혜조차도 이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훈육과 질서의 중요성을 강하게 믿는 자들이 있다. 왜일까? 삶 전체와 자연 전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듣지 않으려 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구조, 즉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조직과 짜임새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이 질서는 위에서 아래까지 세상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삶은 이런 원리에 기초하여 계획되어 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삶은 곧 혼란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신약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에는 참으로 놀라운 점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약에는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무지한 태도 중 하나이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모와 자녀를, 자연 전체에 걸쳐 그렇게 만드셨다. 그분은 삶이 그러한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삶은 바로 그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권면을 이렇게 시작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기본이다. 이것은 근본적이며, 자연 질서에 속한 것이다! 그 질서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만약 거스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며, 삶을 이런 방식으로 세우시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순종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뒤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요점을 이어서 설명한다. 그는 말한다. 이것은 단지 옳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기도 하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니라." 그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지 본질적으로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제5계명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사도 바울이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라는 표현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완전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라는 말이 단순히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즉, 제6, 7, 8, 9, 10계명—에는 어떤 약속도 덧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계명들에도 약속이 있었다면, "이것이 약속이 붙은 계명 중 첫 번째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계명들에는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이 다섯 번째 계명(부모를 공경하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지침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그분의 이름, 그분의 날 등—에 관한 계명들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시작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첫 번째'라는 말은 순서가 아니라 '등급'이나 '중요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강하게 각인시키고자 하셨기에, 이 계명에 특별히 약속을 덧붙이신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앞선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일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명이 중요하고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 계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이 계명은, 무시될 경우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 중 하나이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든 말든 결국 사회 전반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사회의 상태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위험한 측면이다. 가정이라는 개념, 가족이라는 단위, 가정생활이 무너지는 순간—그것이 무너지면, 곧 다른 어떤 소속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계명에 약속을 덧붙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독특한 의미가 있다. 이 관계는 더 높은 차원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 모범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아버지는 마치 저 하늘의 아버지를 상기시키는 존재이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속에는, 원래 인류 전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담겨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행 17:28).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그대로 본뜨고 있는 그림이며, 표현이며, 설교인 셈이다. 특히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상기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관계는 매우 독특하며 신성한 관계이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를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셨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약속을 덧붙이신 것이다.

그 '약속'이란 무엇일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약속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로 주어졌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이 계명들, 특히 이 계명을 지켜라. 그 약속의 땅에서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며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원래 약속의 의미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당신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길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내가 효도하는 아들이나 딸이라면 반드시 오래 살게 된다는 뜻인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복 속에서,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본보기로 삼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든지 간에,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선하신 손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에 이르렀다. 사도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연 질서가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연만이 아니라 율법도 그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은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순서는 이렇다 – 자연, 율법, 은혜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단어에 연결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표현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이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 사도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했던 동일한 원리를 반복하고 있다. "아내들아,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종에 대해 말할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 "종들아,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한 부분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력한 동기이다. 이것이 주께 기쁨이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가 참되다는 증거이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한다: "이제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라. 삶에서 보여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모든 자녀들과는 다를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둘러싼 오만하고, 공격적이고, 자긍심 높고, 거만하며, 악한 말을 서슴지 않는 자녀들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너희에게 멋진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에게 큰 기쁨과 기쁨을 드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타당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은 열두 살 때의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에 없다는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놀라게 하며, 심지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 예수님은 열두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음에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율법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5. 유년기와 청년기의 죄

출처: *Of Domestical Duties* reprinted by Solid Ground Christian Books and Still Waters Revival Books.
저자: J. G. 파이크(J. G. Pike, 1784-1854;)
역자: 김현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시 25:7).

청년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이 짓는 죄를 말하려는데, 제발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청년이 짓는 여러 죄 중에 부주의하고 경솔한 죄가 있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죄가 있다. 공공연한 불신앙이 수천 명을 죽인다면, 이 죄는 그보다 열 배에 달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끈다. 인생이 한 때인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방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임종할 때나 영원한 세상이 엿보일 때 여러분은 반드시 지난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지극히 엄숙한 때가 올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라. 과거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라. 과거는 이제 영영 지나갔다. 하지만 하늘에서 여러분에 관해 무엇이라 보고되었을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에 관해 무엇이라 말할까? 여러분이 과연 심판석에서 반론하고자 일어설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은 극악무도한 죄악을 짓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양심이 정죄하는 것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창조주를 대항하는 이 순간에도 내면은 온통 경고로 가득하지 않은가? 아마 여러분은 "맞아요. 젊은 날의 행위가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심한 것은 젊은 시절에 가볍게 장난친 것 외에는 없어요"라고 반응할지 모른다.

나의 친구여! 그러한 가벼운 죄들이 하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심판자가 그 죄들을 가장 밝은 빛 가운데 보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서는 죄를 얼버무리고 소름 끼치는 죄악을 감추는 것이 관례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가볍게 지나치는 죄를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것을 알라. 가장 작은 죄라도 용서받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은 그대로 가라앉아 영원한 재앙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롬 1:18). 그분은 나이가 지긋할 때의 죄악 못지않게 젊은 시절의 죄악도 혐오하신다. 거룩한 욥은 젊은 날의 죄악에 통곡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욥 13:26). 다윗이 젊은 날의 죄책에서 구원 받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시 25:7).

이제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먼저 유년기에서 시작해보자. 어린 시절에도 순수한 상태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일이 흔하다. 이미 타락한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년기부터 거짓과 불순종과 잔인함과 헛됨과 교만으로 얼룩진다. 당신의 유년기를 생각해보라. 죄로 오염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당신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헛되고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회상하는 일을 피하지 말라. 고통스러워도 유익하다. 어릴 때 지은 죄를 확인하면서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럴 때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저 지은 죄를 회상하는 데 그친다면 은혜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년기는 지나갔다. 이제 영원 세계로 향하는 여행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죄가 수그러졌는가? 오히려 어떤 죄의 성향이 더 활기를 띨 정도로 무르익은 것은 아닌가? 유년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미 있는 모든 죄에 새로운 죄책을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년기의 두드러진 죄 가운데서 교만을 꼽을 수 있다. 이 죄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청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흔하다. 하나님은 교만을 혐오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시 138:6).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잠 16:5). 그분은 "교만한 눈"(잠 6:16, 17)을 미워하신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 다 죄니라"(잠 21:4). 교만은 저주를 받는 일이다(시 119:21). 교만은 많은 악의 뿌리이며, 수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믿음으로 교만을 제압하지 않으면 왕궁이나 오두막이나 가리지 않고 교만은 나타난다. 탕자에게서 우리는 교만을 찾아볼 수 있다(눅 15:12).

우리 마음속에 기어들어 온 죄 중에 하나님이 크게 혐오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 아닌가? 교만은 겸손해야 할 때 오만해지게 만들 수 있다. 양보해야 할 때 완고해지게 하고 용서해야 할 때 복수하게 할 수 있다. 손해를 보거나 수욕을 입었을 때 주님처럼 아버지를 부르며 길이 참기보다 분개심을 드러내게 한다. 고난의 시기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은 교만할 때 지혜의 조언을 계속 무시할 것이다. 교만은 당신이 잘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귀를 막고 돌아서게 한다. 어떻게 외모를 꾸밀지 고민하는 것은 부질없다. 불멸의 영혼에 구원의 옷을 입히기보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지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한 생사 문제보다 옷 모양이나 최신 유행이나 모자 모양에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기보다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지 모른다. 아아! 교만이 자기 숭배로 이끌지 않기를 바란다. 잘 생긴 얼굴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모양이나 남성미를 갖추려는 헛된 꿈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아아, 어리석은 헛된 욕망이여! 당신은 어느새 죽어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욥 17:14)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당신 역시 어리석게도 헛된 욕망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거울 앞에서 자아 숭배에 빠진 모습보다 역겨운 것이 있을까? 피조물 가운데 타락한 영혼이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해괴한 것이 있을까?

교만의 종류 가운데 가장 흔하고 해로운 것은 자기 의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이 죄를 가장 인상 깊게 묘사하셨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자랑했다. 곧, 남들이 짓는 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고, 각종 의무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다고 했다. 이처럼 그는 모래 같은 기초 위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안심했다. 그의 마음에는 겸손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오히려 교만과 헛된 망상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께 나아갔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영혼 상태가 정확히 이와 같다. 잘 알려진 부도덕의 죄를 삼가는 청년들 중에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 흔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주변의 품행 나쁜 청년들과는 달라요! 그들은 더러운 욕을 하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술 주정뱅이 같은 부도덕한 청년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마음이 친절하고 성실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선해요. 모두 좋은 청년들이에요!"라고 말들 한다. 하지만 그 청년들은 일절 하나님이나 자기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면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그들은 헛된 착각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을 꽤 괜찮은 청년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선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수만 가지 악을 보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짓는 죄악 가운데 자기 의라는 교만을 가장 혐오하신다.

청년들이 흔히 짓는 다른 죄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 3).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의 지시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경우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또 부모보다 구속하신 주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는 가장 따뜻한 친구다. 특히나 경건한 부모의 확실한 인도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자녀는 하나님의 발등상에까지 이를 수 있다. 자녀의 관심은 곧 부모의 관심이며, 자녀의 안녕은 부모의 행복과 같다. 아아, 하지만 부모의 돌봄이 자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젊은 친구 여러분, 무력한 유아기 곁에 있어 늘 함께 하며 돌봐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당신을 돌보느라 세월을 보냈다. 어머니는 젖을 먹여 돌보고 유아 시절을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녀들에게 순종과 애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어쩌면 지금 하는 말은 불순종과 악한 행동으로 다정하고 경건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쁨 대신 슬픔으로 가득 채우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일 수 있다. 부모의 바람은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모는 당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 이런 이유로 부모는 교회와 가정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런 이유로 부모는 당신이 어릴 때 교훈을 하고 나이 들면 훈계하면서 인생의 주요 목적을 잊지 않도록 늘 경고한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 당신이 신앙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행여나 자녀가 사탄에 놀아나지 않을까 남몰래 슬퍼한다. 아아, 청년들이여, 만일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대가 귀한 특권을 남용한 것과 부모의 모든 가르침을 무시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부모의 기도와 눈물과 훈계는 그대에 대한 뼈아픈 증거가 될 것이다. 부모에게 애정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면 경건한 부모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경건한 부모는 여전히 애정 많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늘 슬퍼할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행여나 당신이 영원한 멸망에 성큼 다가선 것은 아닌지, 곧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근심한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느긋하게 살아간다.

아아, 청년들이여, 신앙을 우습게 본다면 경건한 부모는 그대를 더 붙잡지 못하고 다만 죽을 때 통곡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제 너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너무 슬프구나.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너는 구주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는 천국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니, 너는 죽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그렇다. 부모는 자기 눈에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비통하게 울 것이다. 그대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던 모든 것이 곧 지옥의 심연 속에 묻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흔히 짓는 다른 악한 죄는(꼭 그들만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고전 7:29)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하신(엡 5:16; 골 4:5)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시간의 가치는 우리의 이해나 표현을 초월한다.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죄짓고 하찮은 일을 하는 데 얼마나 낭비하는가! 많은 청년이 아직 쓸 시간이 많은 줄 생각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 하지만 그들이 헛되게 보낸 젊은 세월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일 수 있다. 영원을 준비할 기회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다 잃을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가장 흔한 행동 중 하나는 연애와 연극 관람과 소설 읽기이다. 소설은 이 시대의 독이다. 정신을 해롭고 나약하게 하는 데 으뜸이다. 많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음탕하고 방자한 내용이다. 설령 청년들이 모든 악한 혐의에서 자유로울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할 끔찍한 시간 낭비는 가장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설 예찬론자들이 영원한 판결을 앞에 두고 소설 읽기를 두둔할 수 있을까? 당신이 소설을 좋아한다면 손에 소설을 쥐고 다음을 고민해 보라. "소설에 빠져 낭비한 시간을 엄중하신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나에게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었거늘, 너는 나와 교제하는 일에 힘썼느냐? 나의 말씀을 연구했느냐?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여가 시간에도 선한 목적을 이루려 노력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가서 '아아! 주님, 하나님과 내 영혼의 유익을 무시했지만 제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웠습니다! 소설과 연애가 저의 여가를 지배했습니다!'라고 떳떳이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가장 귀한 축복인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 없이 버린 시간이 산더미 같이 많은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영혼과 영원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은 청년이 짓는 또 다른 죄다. 청년은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미루면서 미래를 멋대로 추정하고 성령을 근심시킨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 이 경고를 듣는 자는 소수다. 경고를 듣는 대신 스스로 아직 살날이 많다고 장황하게 지껄이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는 일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혼을 무시하고 신앙은 불필요한 일로 생각하거나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복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십

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당부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그들에게 충고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많은 청년이 제 길만 고집한다. 무슨 일을 하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전 12:1). 청년 여러분, 이런 내용이 바로 그대의 죄와 어리석음이 아닌가? 오오, 만일 그러하다면 이 세상을 떠나게 할 요인은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청년의 때에 목숨을 잃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을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만, 낭비하라고 주시지는 않는다.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환락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또한 청년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 하나다. 성경은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들”로 묘사하고(딤전 5:6),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을 가장 혐오스러운 악한 자들로 분류한다(딤후 3:4). 주님의 선포가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은 여전히 쾌락을 사랑한다. 어떤 이는 거칠고 난폭한 술잔치와 음주벽과 불륜과 음탕한 것에서 쾌락을 찾는다. 또 어떤 이는 품행이 나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그들은 카드놀이, 춤, 경마, 극장, 전시회, 전야제 등에서 더없는 행복을 느낀다. 청년들이여! 당신의 마음이 항상 이러한 세상 쾌락을 향하는가? 당신은 추문이나 불명예스러운 극단까지 치닫지 않는 사람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신앙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 역시 멸망의 자식이라는 끔찍한 표를 몸에 지닌 것이 확실하다. 당신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가 맞다. 죄가 주는 즐거움에 취하고 죄악 된 축제 현장에 종종 머무는가? 다른 이들처럼 그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감각적 즐거움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느라 다가올 세상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에 담긴 축복보다 겉만 반짝이는 화려한 놀이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순수한 천상의 영원한 기쁨을 확보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필자는 그리스도인은 우울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천국에 자기 이름이 쓰인 것을 아는 자만큼 기뻐하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과 어리석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웃음이나 주는 시시한 농담 따위에 마음 쓸 여유가 없다. 그들은 진정한 신앙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대답해보자. 그대는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가? 사정이 여의찮아 맘껏 감각적 기쁨을 누릴지 못할 뿐 여전히 마음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갈망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대는 세상 즐거움에 빠질 기회를 한 달 또는 일 년에 한 번밖에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늘 세상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쾌락의 노예이다.

사도 바울이 인류가 짓는 죄를 몇 가지를 열거했을 때 그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데서 쾌락을 느끼는 무서운 죄도 있다(롬 1:28). 이것이 가장 끔찍한 죄 중 하나이고 인간의 가장 흔하고 연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특별히 청년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청년들은 종종 서로 유혹하여 서로 파멸에 이르게 한다. 곧, 추잡하고 더러운 욕을 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유혹해 똑같이 추잡하고 더러운 욕을 하게 만든다. 아무런 분별없이 그저 사교계에 빠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경박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따라 하도록 부추긴다. 많은 사람이 자기만 죄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에 빠지게 한다! 곧, 자기 혼자 파멸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처럼, 동료와 친구들을 끌어들여 함께 죄악을 도모하며 서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듯 당신은 다른 사람을 죄악으로 끌어들인 적은 없는가? 어쩌면 당신이 알았던 몇몇 사람은 현재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어 완전한 어둠과 절망으로 무서운 시간을 보내며 당신과 동료로 지낸 사실에 통곡하고 있을지 모른다. 당신은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가? 황금 같은 은혜의 때를 낭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망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말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신앙의 본을 경솔하게 나타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끼쳐온 사람이다.

자, 필자는 청년의 연약한 점을 몇 가지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절대 아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짓기 쉬운 모든 죄는 이미 죄에 익숙한 세월을 보낸 장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막 인생길에 접어든 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 여러분,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무리의 더 심한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역시 내면에서 악마와 같은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가? 곧, 교만, 시기, 적의, 복수심 같은 감정 말이다. 욕설이나 음탕한 말이나 매정한 말이나 헐뜯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청년이 있는가? "경솔한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한 번도 조롱한 적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청년이 있는가? 경박하고 어리석게 떠드는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청년이 있는가? 거만하거나 화난 눈으로, 또는 음탕하거나 멸시하는 눈으로 남들을 바라본 적이 없는 청년이 있는가? 당신이 그러한 사람인가? 과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에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대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은 사랑(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품었는가? 잠깐이라도 분개하거나 시기하거나 매정한 감정을 품은 적이 없었는가? 당신의 입은 항상 선한 것만 말했는가? 당신의 눈은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선한 것만 보았는가? 당신의 귀는 형제의 허물을 말하는 입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는가? 그러했다고 호소할 수 있는가?

~~~~~

요즈음 자녀들은 그들이 집안의 가장 같고 부모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 같다. 이는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골칫덩이가 되고 저주 거리가 되었을 때 부모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꾸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비통한 눈물을 흘릴 것이다. 아이와 부모 모두 본연의 위치를 지키도록 하라. - 찰스 스펄전
~~~~~

6. **자녀들아, 선한 목자를 찾으라**

출처: From "To the Lambs of the Flock" in *Memoir and Remains of Robert Murray M'Cheyne*

저자: 로버트 머리 맥체인(1813-1843):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남. 던디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로 섬김. 그의 목회사역은 깊은 개인 경건과 기도와 강력한 복음주의 설교가 특징임.

역자: 박기철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 40:11).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은 좋으신 목자시다. 예수님의 팔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의 가슴은 창에 찔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팔로 너희들을 모으시고, 창에 찔리신 그 가슴으로 너희들을 안으신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나도 매일 그리스도께 대답한다. "주님, 나의 양떼를 먹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는 오랫동안 너희들을 기다려왔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중 일부를 모아주셨다고 믿는다. 하지만 더 모여야 할 양들은 없는가? 불못에서 건져야 할 푸른 풀은 더 이상 없는가? 너희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 아래 숨어야 할 사람은 더 이상 없는가? 오, 주께 오라! 왜냐하면 "아직도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눅 14:22). 내가 좋으신 목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드려라.

1) 예수님께는 양무리가 있다.

모든 목동에게 양무리가 있듯이 그리스도께도 자기 양떼가 있다. 나는 예루살렘 근처의 계곡에서 양무리를 본적이 있다. 목자가 그 양무리 앞에서 그들을 부르자 양떼들은 그 목소리를 알고 목자를 따라갔다. 나는 말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오, 나도 그 양떼 중 하나이기를!

(1) 그리스도의 양떼는 숫자가 적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눅 12:32). 그 적은 무리에 속하기를 기도하라. 세상을 보라. 나라와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수십억의 남녀와 아이들이 모두 심판대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무리인가?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달콤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중 대다수는 아름다운 샤론의 꽃을 본 적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무리이다. 이 도시를 보라. 장날에 거리를 누비는 군중들! 정말 많은 무리가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무리인가? 아니다. 이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것이 두렵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어린 양을 따르지 않으며 영원히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학교를 둘러보라.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 많은 귀한 영혼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양떼인가? 아니다. 너희들 대다수가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너희들 대다수가 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긴다.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의 삶을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서 영원이 살 것인지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많은 가시들 속에서 하나뿐인 백합처럼 되기를, 늑대들의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어린양이 되기를 기도한다.

(2) 그리스도의 양들에게는 표시가 있다

대부분의 양무리들에게는 양치기가 알 수 있도록 모두 표시가 되어 있다. 그 표시는 종종 양의 등의 털에 타르로 표시된다. 그 표시는 주인 이름의 첫 글자로 표시되곤 한다. 그 표시의 사용 목적은 그들이 다른 양들 사이에서 방황할 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무리도 마찬가지다. 그분의 모든 양은 두 개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표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리스도의 무리에 있는 모든 양과 어린 양은 한때 죄를 짓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도함 받고 깨끗이 씻겼다. 그들은 모두 "목욕시킨" 양과 같다(아 4:2). 그들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계 1:5). 너희에게 이 표시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것이 없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계 7:14).

또 다른 표시는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양의 흰 털에 있는 표시처럼 밖에서 볼 수 있는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새로운 마음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겔 36:26).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침이다. 성령께서는 무한한 권능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조용히 변화시키신다. 너희는 이 새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사랑하는 자녀들아, 죄 용서를 위한 피와 새로운 마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양 된 표시이다. 오, 지금 당장 그것들을 얻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라. 곧 목자장이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을 것이다. 그날 너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3) 그리스도의 모든 양떼들은 함께 모인다.

양들은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양은 늑대나 개와 함께 가지 않지만 항상 무리와 함께 간다. 특히 폭풍이 닥칠 때는 서로 가까이 뭉친다. 하늘이 구름으로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목동들은 양들이 언덕에서 내려와 안전한 계곡에 모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무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세상과 함께 가는 것보다는 항상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 그들은 같은 평화, 같은 성령, 같은 목자, 불멸의 언덕에 같은 양우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어둡고 흐린 날에는 그리스도의 양들이 함께 모여 울기 시작한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자"(요일 4:7).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구로 만들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라. 누가 불을 가슴에 품고 타지 않을 수 있겠는가?

2)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위해 하신 일

(1)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에 난 상처들은 가난한 죄인의 눈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랑스럽게 만든다. 지금과 앞으로 그리스도의 양이 될 모든 자들은 한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었고 그들은 불타는 호수에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보다 못한 벌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롬 5:8). 이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이다. 무리의 모든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다(갈 2:20).

(2) 그리스도께서 양떼들을 찾으심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발견치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했을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한 번은 나는 목동에게 물었다.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양들을 어떻게 찾나요?" 그가 대답했다. "네, 우리는 양들이 폭풍이 불 때 찾아가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양들이 눈 속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눈을 치우면 양들이 나올 수 있나요?" "오, 아니오. 양떼들은 한 걸음만 걸어도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양떼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는 방법이다. 예수께서는 얼어붙어 죽은 채로 깊은 죄악의 구덩이에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신다.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딛으면 자신의 영혼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팔을 뻗어 우리를 데리고 나가신다. 이것이 그가 구하신 모든 양을 위해 하신 일이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영광, 영

광, 영광을!

(3)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먹이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예수께서 당신을 구하셨다면, 그는 당신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먹여 살리실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시 37:2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먹이실 것이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험준한 절벽 틈새에서 작은 꽃을 먹이시는 자는 당신의 영혼에 고요한 하늘 이슬방울을 먹이실 것이다.

나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사는 어린 소녀 이야기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착한 행실로 인해 성경을 상으로 받았다. 성경은 그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물이 되었다. 그녀는 성경에 의해 양육되었다. 한편 그녀의 부모들은 모두 악했다. 그녀는 종종 부모님에게 성경을 읽어드렸으나 그들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다. 이것은 엘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병상에 눕게 되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녀는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선생님이 도착해서 말했다. "사랑하는 엘리자야 너에게는 친구가 있단다." 그녀가 대답했다. "맞아요. 귀한 성경이 있는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을까요! 제가 삶이나 즐거움을 위해 원하는 것은 말씀이 주는 하늘 음식과 약, 방패와 검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세상이 나를 가난한 자라고 평가해도 좋아요. 저는 그것들 외에 더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 말을 하고나서 고개를 숙이고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무리를 먹이시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목자시다. 만약 너희가 그의 무리가 된다면, 그는 너희가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먹여 살리실 것이다.

3) 예수님은 그의 양떼를 돌보신다

모든 신중한 목자들은 무리의 어린 양들을 부드럽게 대한다. 양떼가 이동할 때 어린 양들은 멀리 갈 수 없다. 어린 양들은 종종 피곤해 눕곤 한다. 이제 친절한 목자는 몸을 구부리고 부드러운 팔을 양떼들 아래에 놓고 품에 눕히신다. 주 예수님은 이러한 목자시고, 구원받은 아이들은 다 그의 어린 양들이다. 예수님은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예수께서는 죄지은 많은 어린 양을 모아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신다. 그는 너희들이 한 때 잘 알던 이 세상으로부터 그의 우리로 모으셨다.

예수께서는 성육신 전에도 어린 양들을 돌보셨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그가 회심했을 때 너희들 중 가장 작은 아이였다.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혀주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엘아!" 그는 일어나서 눈이 침침하고 늙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대답하였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다. 엘리는 다시 대답하였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세 번째로 거룩한 목소리가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하였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웠다. 네 번째로 목소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외치셨다(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자주 부르시는지!)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을 팔로 모아 가슴에 안으신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삼상 3:19, 21).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기에 너무 어리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노인들의 눈도 열어주신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도 쉽게 여실 수 있다. 그렇다. 어린 시절은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너희들은 어리지만 죽을 수도 있고, 심판 받을 수도 있다. 어리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선생님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그 분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어린 사무엘들이 많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린 양들을 돌보신다. 고인이 된 해밀턴 공작은 두 아들을 두었다. 장남은 어렸을 때 결핵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두 명의 목사가 글래스고 근처로 그를 만나러 갔다.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그는 누워 있었다. 기도 후, 그 아이는 베개 밑에서 성경을 꺼내어 디모데후서 4장 7-8절로 눈을 돌렸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그는 말했다 “목사님, 이것이 저의 유일한 위로에요!” 그의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동생을 침대로 불러 큰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세상을 떠났다. "더글라스야, 이제 곧 너는 공작이 되겠지만, 나는 왕이 될 거야."

너희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가? 지금 혼자만의 장소로 가서 무릎 꿇고 주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무릎을 떼지 말아라. 예수님의 팔에 붙들려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라. “감히 그럴 수 없지만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가게 하지 아니할 거예요!”

7. 왜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가

출처: *Repentance and Faith Explain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Young*
저자: 찰스 워커(Charles Walker, 1791-1870): 코네티컷 우드스톡에서 출생한 회중주의 사역자. 하나님의 진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에 힘씀.
역자: 박기철

나의 어린 독자여! 필자는 친구로서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줄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연구에 너의 마음을 쏟아줄래?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너는 구원에 있어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의 또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많이 말한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 성경은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히 11:6). 만약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으며 그분 앞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만일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신지, 어디에 사시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실지 알려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 즉 무덤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다. 의인에게는 행복한 곳이 마련되어 있고 악인에게는 비참한 곳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러한 모든 것과 함께 훨씬 더 많은 것들도 알려주신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그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해가 가는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해 보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도록 당신을 이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나라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에 대한 것도 다룬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 즉 죄인이 구원 얻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뢰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만을 의존하게 한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신 및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도록 이끌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성경은 진실하다는 일반적인 종류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아닌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단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아닌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구주에게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다. 성경은 말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또한 말하길,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구주를 믿는 참된 믿음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랐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그가 서른 살이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를 믿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교하셨다(막 1:15).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의 삶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완전히 거룩한 삶이었다. 그는 완벽히 선한 본을 보이셨고, 그의 가르침은 지혜롭고 선하였다. 그의 대적들조차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말했다(요 7:46). 그는 사람 및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악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는 세상 죄를 속하셨다(요일 2:2). 그리고 회개하고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는 죽으신 후 무덤에서 일어나사 제자들에게 살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그 후 그는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히 7:25).

이것은 성경이 구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짧은 이야기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요구하신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구주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만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행위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구주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게 하거나, 당신으로 하여금 구주의 친구이자 제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젊은 독자들이여, 너희가 주의 깊게 이것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왜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본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한다(요 3:18).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없다. 그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는 말씀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너희는 길을 잃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의무로부터 떠나 방황하고 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이다.

8.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

출처: *Boys and Girls Playing*

저자: 존 라일(J. C. Ryle, 1815-1900): 성공회 감독, 『거룩』,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옛길』, 『복음서 강해』 등 수많은 책을 썼다. 영국, 체셔 카운티, 마클레스필드 출생.

역자: 전우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이 1:4)

이 구절에서 말하는 '행한다'(Walking)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히 발로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 즉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지를 말한다. 성경은 왜 '행한다'(Walking)라고 부를까? 그것은 인간의 삶이 마치 여행과 같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늘 여행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기 때문이다.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정이며, 인간의 삶의 방식은 흔히 '행보'(Walk)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 악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참된 성경적 신앙의 방식대로 행한다는 의미이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거짓된 관념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신앙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이 많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큰 원수인 마귀에게서 나온다. 마귀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했다. 그는 금지된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마귀는 지금도 항상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항상 남자 여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이 악한 것이 선하고 선한 것이 악하다고 믿게 만든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며, 죄가 그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득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속아 이러한 거짓된 생각을 믿고 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매우 다르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관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길을 따른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참된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된 자녀들의 모습이다.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며 말한다. "내가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너희는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표지를 알고 싶은가? 모두 잘 들으라. 내가 그 표지들을 차례로 알려주겠다. 모든 소년과 소녀는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1)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은 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든 어기는 것이 바로 죄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고 순결하시기에 모든 죄는 그분을 심히 기쁜 나쁘게 만든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부분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죄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자주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렇게 끔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심하거나 엄격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크고 위험한 착각이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녀들은 매우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신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다. 그들은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죄를 가장 큰 원수이자 재앙으로 여긴다.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죄를 가장 미워한다.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첫 번째 표지이다. 이 표지를 보라.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대는 죄를 미워하는가?

2)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은 죄인을 위한 참된 구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 두려운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더욱 적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 회개, 교회 출석, 성찬 참여, 선한 행위 등을 의지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단 한 영혼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다. 이것들은 모두 거짓된 구원의 길이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죄를 없앨 수 없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그들만이 심판의 날에 전능하신 친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참된 길이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에게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10:14) 그들은 어린양이 선한 목자를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두 번째 표지이다. 이 표지를 보라.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라. 그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3)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도 알다시피,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들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진지한 척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다. 입술로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지만 진심이 아니다.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항상 다른 생각을 한다. 이러한 예배는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이며 매우 잘못된 예배이다.

안타깝게도 나쁜 자녀들은 종종 이런 죄를 짓는다. 부모가 시킬 때는 규칙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켜볼 때는 집중하는 척하지만, 다른 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 안에는 주의 영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정직하기를 원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그들은 기도할 때 모든 말에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한 태도로 집중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일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세 번째 표지이다. 잘 살펴보고 잘 생각해 보라. 그대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인가? 아니면 진실한 마음인가?

4)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참된 일을 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성경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를 오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어기고, 그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속이고, 도둑질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 불친절하고, 게으르며, 탐식하고, 쉽게 화를 내고, 이기적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악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진리 안에 행하는 자녀들은 항상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어떤 종류의 죄악스러운 일도 즐기지 않으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한다.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남을 도우려 하고, 순종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모든 면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더 거룩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의 마지막 표지이다.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 그대의 행동은 옳은가 그른가?

자녀들이여, 이제 너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몇 가지 표지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이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제시하였다. 나는 너희가 그것들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죄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모두 함께 있어야 한다. 간곡히 부탁한다. 이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각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라.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의 영혼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신뢰하라.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지켜 주는 목자가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시며, 보호하시는 왕이 되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 예수님은 그의 영을 너희 안에 부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또한 악한 기질을 억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의 걱정을 가볍게 해 주시고, 너희의 일도 쉽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

스도께서는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해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다. 그는 어떤 여인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고 기뻐했다.

9.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출처: 스펄전의 1887년 3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저자: 찰스 스펄전 (1834-1892): 영국 침례교도이자 성경에 나오는 설교자 외에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힌 설교자. 영국 에식스 켈베든 출생.
역자: 김혜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잠 6:20-21).

나는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젊은 남자나 여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길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칙이 인도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노인들보다 큰 진보를 이루었다. 그렇지 않은가? 젊은이들은 놀랍도록 똑똑하고 지적이며, 노인들은 그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 그렇다. 턱수염이 자라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아마도, 우리가 더 철이 들면, 우리는 그렇게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많이 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감히 젊다고 말 할 수도 없는 내가 과감히 말하자면,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큼 바랄 것이 없다. 나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길과 나란히 달리는 길 외에는 어떠한 길도 찾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봤다면, 그 경건한 자들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탈선하기 전에 곰곰이 멈추어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뒤엎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속한 경건한 가문의 모든 전통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결국 본인도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금이나 은의 가보를 구하지 않는다. 내가 천 번을 죽어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과 또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내가 가진 가장 큰 소유물로 삼는다. 나는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기도한다. 당신에게 전해 내려온 고귀한 삶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얼룩지게 하지마라. 당신의 아버지의 방패를 더럽히지 마라. 당신의 죄와 위법 행위로 존경받는 선조들의 방패에 얼룩을 남기지 마라.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를 훈련시킨 선조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솔로몬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말한다. 첫 번째로 그는 "부모의 교훈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라"고 말한다. 이는 그것은 사랑으로 붙잡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교훈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라. 마음은 생명의 핵심이다!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라. 만일 우리가 젊은 남녀를 데려다가 진실한 사랑의 경건 없이 외적으로 종교심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단순히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그리고 오, 그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이러한 교훈들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교훈들은 살 가치가 있고, 죽을 가치가 있으며, 모든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 교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 신성한 삶의 불멸의 원리다. "그 교훈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라."

솔로몬은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부끄러운 것처럼 비밀로 간직하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그것을 네

목에 메라"고 더하여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일 과감히 드러낼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시장이 자신의 공직의 훈장을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그것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관들은 그들의 배지를 차고 있다. 나는 그 장신구들이 얼마나 큰지 생생히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착용하려고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너희의 신앙을 목에 걸어라. 창피해 말라! 시장이 그의 목걸이를 걸듯이 너희도 그 교훈을 장신구같이 입으라. 무리 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창피해 말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들어갈 수 없는 무리가 있다면, 그곳에 절대 가지 말라.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내 주인을 소개할 수 없는 곳에는 있지 않겠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 너희가 어떤 곳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결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교훈을 당신의 마음에 매어두라. 그것을 너희 목에 걸라.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도록, 그리하여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간 경건한 선조들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끝까지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